

#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착공

### 시,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연말까지 총사업비 27억원 투입 3개 테마 조성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가 '정원의 숲' 착공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전주시는 30일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뒤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시민 현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가치 실현을 앞당길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30일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뒤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시민 현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가치 실현을 앞당길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종합경기장 전체 5개의 숲(정원의 숲, 미식의 숲, 마이스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정원의 숲'은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곳을 기억의 정원이자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변신을 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야구장 옆 청소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부지 약 8000㎡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풍경 담은 정원 △초화연덕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된 정원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풍경 담은 정원'은 시민의 숲 전체를 엮을 강한 축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들관정원과 거울연못, 바닥분수, 돌담길 등이 조성된다. 풍경 담은 정원과 맞닿은 '초화연덕 숲'은 꽃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되며, 비의 정원과 언덕이 있는 가든, 가로수길, 보라 정원 등으로 채워진다. 종합경기장 야구장에 조성되는 '예술의

숲'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마당 품은 길'은 하얀 정원, 언덕길, 너른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날 첫 삽을 뜬 정원의 숲 외에도 예술의 숲과 '마이스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야구장 본부식 자리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 시립미술관의 경우 자체 타당성조사를

를 추진 중이고, 종합경기장 우측(북동측)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근처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짓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시삽 대신 정원의 숲에 조성될 나무에 물을 주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함께 팡나무를 심기도 했다. 특히 전주페이퍼가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합찬 출발을 응원하며 1억 원의 현수금 전달에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원의 숲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시민의 숲 1963' 부지재생이 마침내 시작됐다"면서 "정원의 숲을 시작으로 놀이·예술·미식·마이스 숲이 조성되고,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캐도에 오르면 종합경기장 부지는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이자 경제에 활기를 주는 전주의 문화·경제중심지로써 핵심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첫마중 권역주민 건강 돌본다

### 전주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공감치유센터 운영 위해 대자인병원과 업무협약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공동체활동을 지원할 거점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와 대자인병원은 30일 우이동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덕진구 도당산3길 8-4)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대자인병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식을 했다.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이하 센터)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2억여 원을 투입해 기존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센터는 전주 첫마중 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쉼터 △건강체크 △건강강좌 △통합돌봄 등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 1층에 구축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민간병원인 대자인병원과

연계해 △합달, 월담, 인바디 등 개인별 건강상담 체크 △건강교육 및 의료복지 자원연계 등 통합돌봄 프로그램 △자원봉사 웰니스 아카데미(간병돌봄) △시니어 정보화 역량교육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센터 2층은 주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작은도서관과 쉼터 공간으로 꾸며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가 전주역 앞 첫마중 권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대자인병원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등록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은 주민등록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주민등록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주요 개념 설명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1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기존 업무 담당자들이 보유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민등록 제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도 거쳤다.

한편, 전주시는 최일선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주민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 특화분야 중소기업 26개사 지원

### 선정된 26개 기업과 성과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식품·화학제품 등 지역특화분야 중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한다.

두 기관은 30일 진흥원 기술교육동 2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6개 기업과 '제1회 이(異)업종 포럼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異)

업종 포럼은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화학제품 등 6대 특화분야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특화분야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와 진흥원은 올해 특화분야

선정·지원사업에 선정된 26개사 대표와 성과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주시 신규 지원사업과 각종 시책 등을 안내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9년부터 이(異)업종 포럼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특화분야 지원사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민주 도당 검증 심사기준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부적격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부적격 결정은 중앙당이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으

로 제시한 7대 중대범죄 항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고무늬 잣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적격이라니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쾌적한 가로환경 위한 점검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환경을 집중 정비한다.

완산구는 22개 부서별 정비반을 편성해 오는 4월 7일까지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보수, 하천정비 등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백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서부신시가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주정차 방해 시설물을 일제 단속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방지설치 사업을 완료해 관내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순찰대 등 11개 단속반을

활용해 안전 취약지인 인도와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차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도로와 하천, 교량 등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천변 내 산책로와 장금다리,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물 점검 및 보수도 추진한다. 이밖에 19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생단체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구역에 대해 일제 대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광장 등에 봄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